

# 산업보건 주요뉴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일 국민과 함께합니다.  
 조금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 행동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9년 국가기술자격 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 강화로 수험자의 주의 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 기술사 등 5개 등급 482개 종목의 2019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 및 시험운영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수험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하거나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핸드폰, 전자시계 등 시험에 불필요한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했을 경우, 당해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고 퇴실조치 및 시험은 무효처리 된다. 공학용계산기 사용 규정도 변경된다. 기사사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내 공학용계산기 사용만 가능하며 기술사를 비롯한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네 가지 등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의 사용이 가능하나 시험 전 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해 직접 계산기를 초기화하고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공단은 증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험자의 편의를 높인다. 상시검정 종목을 기존 12종목에서 미용사 네일(Nail)과 메이크업(Make-up)을 추가한 14종목으로 확대한다. 기술사 등급은 면접시험 종료 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을 4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기술사 제118회 면접시험부터는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해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 안전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방향 수립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중장기 연구전략 KORA 개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이관형)은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안전보건 현안 해결을 위한 중장기(2019~2029년) 연구전략 KORA를 수립했다. KORA는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 연구실현'을 핵심 목표로 삼고 혁신적인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연구 방향성을 제시한다.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선도, 현안 해결 및 공공성 제고, 안전보건 토대 강화 등 3대 연구 추진전략과 7개 전략과제, 27개 세부 실천사항으로 구성됐다.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플랫폼 노동의 확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산업 구조와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융합 연구와 함께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한다. 안전보건 현안 해결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재해예방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사회심리적 접근법을 통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연구를 강화한다. 한편, 연구원은 KORA 수립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TF를 운영하고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엔 수립된 KORA는 향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 중이며 세부 내용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단 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 연구원 소개 ☞ 비전 및 전략